

# 환경교육을 지키는

이진종(李珍鍾) 회장 - 1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1. 40여 년의 변치 않는 우정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이진종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당시,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였는데, 이진종 회장은 안양에 있는 ‘직장새마을교육원(원장 김일주 전, 국회의원)’의 교육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는 ‘환경’이라면 ‘가정환경’ 정도를 지칭하는 시대였는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자연보호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새마을교육 과목에 ‘자연보호’가 들어가고, 그 강의를 필자가 맡음으로서 이진종 회장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198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빛을 잃어, 이진종 당시 교육부장이 새마을교육을 떠나게 되는 1989년까지 매주(처음의 자연보호 강의는 곧 이진종 교육부장의 해안으로 환경교육으로 강의 내용이 바뀌고, 필자는 고 채규철, 홍영매 강사와 함께 최장수 강사로 출강했다.) 이진종 회장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강사와 교육부장 사이로 매주 만남, 그 긴 시간 동안, 필자가 본 이진종 회장은 한마디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니,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40년 세월에도 처음과 똑같은 이진종 회장이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그 진지함이나, 태도 그리고 어

떤 일을 구상하고 처리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한결같은 것은 물론, 심지어는 말투나 몸가짐이 40여 년 전, ‘새마을교육원’의 교육부장 그대로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이진종 회장과 대화를 나눌 때면 40여 년 전, 교육원 시절이 떠올라, ‘이제, 강의하러 강당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강의를 끝났으니, 서울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 이진종 회장과 사이는 새마을교육이 끝나고, 이진종 회장이 강화도에서 일반 직장교육을 운영하면서도 이어지다가, 어느 날, “박 위원장님 나도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교육을 할까요?”라는 말로 구체화 되었다.

즉, 당시 ‘환경청’ 으로부터 ‘사단법인 환경교육회’라는 법인단체 인가를 받고도 이렇다 할,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농촌운동(계몽과 교육)을 오래하고, 새마을교육을 위해 20여 년간 헌신(獻身)해 온 교육의 달인(達人)이 ‘환경교육’을 맡아보겠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큰 원군(援軍)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이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말야 주십시오.”가 되었다.

## 2. 이 나라 환경교육의 기틀을 마련

지금 환경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정착되어 세력화,



▲ 1980년대 중반, 새마을교육원 교육부장실에서 환담하고 있는 당시 강사인 박창근 위원장(왼편, 양복 차림)과 이진중 교육부장(오른편, 교육복 차림)

정치화, 심지어는 재력(財力)화(그래서 환경보호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졌다.)되었지만, 이진중 회장이 환경교육을 시작할 때의 80년대는 환경보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래도 환경운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즉, 최열씨가 주도한 '환경운동연합'이나, 장원씨가 이끈 '녹색연합'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세력화도 될 수 없는... 말하자면,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뿐이었다.

그런 일을 이진중 회장은 묵묵히 이끌었다. 초창기에 이진중 회장은 환경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찬조는 꿈도 꾸지 않았다. 정부의 들러리나, 기업의 앞잡이가 될 수도 없고, 되지 않는 일에 정부나 기업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세 아들)들 교육과 집안 살림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인에게 일임하고, 이진중 회장은 옛날, 새마을교육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知人)과 조직(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을 찾아다니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당위성을 호소하여, 초·중·고등학생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주료, 문구류와 인쇄용지)를 지원 받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이진중 회장의 노력과 진정성이 알려지고 평가 받아, 지금은 작은 프로젝트이지만, '환경부'와 '기업'에서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부탁하고,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규모와 예산은 부자(富者) 환경단체의 임원 판공비와 직원들 연간(年間) 급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진중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애초에 명예나 돈을 위해서, 환경교육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